

#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명식) (510) 562-3843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standrewoak@gmail.com  
 thmschae@yahoo.com 대건외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 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항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한국학교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토요일 오전 9:40-12:50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낮설고 거친 길 한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려도  
물어보면 그만이다.  
물을 이가 없다면 헤매면 그만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목적지를 절대 잊지않는 것.  
한비야의 글 중에서**

[제 1독서] 1사무16, 1-7. 10-13  
 [화답송] 시편23(22), 1-3. 3. 4-5. 6(◎)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 2독서] 에페5, 8-14  
 [복음 환호송] 요한8, 12참조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  
 [복음] 요한9, 1-4 또는 9, 1. 6-9. 13-17. 34-38

성가	8시 미사	입당 117	봉헌 216 213	성체 170 172	파견 122
	11시 미사	입당 117	봉헌 216 213	성체 170 172	파견 122

##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사순 제4주일(3월 30일)		사순 제5주일(4월 6일)		주님수난성지주일(4월 13일)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미사해설	이바오로(명국)	허세실리아(홍숙)	임루카(승원)	전베로니카(진영)	정스텔라(애리)	이엘리사벳(자영)
제 1 독서	강요한(신호)	구미카엘(창희)	최분도(환준)	심미카엘(태규)	전안드레아(덕천)	정요한(석준)
제 2 독서	김안젤라(영선)	이골롬바(정연)	최분다(수영)	심헬레나(승화)	서테레사(춘애)	전베로니카(진영)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수난복음					김안토니오(휘)	이레이몬드(창용)
					이바오로(명국)	이베로니카(경란)

## 목표를 향한 준비의 시간!

예전에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장애물 경기가었습니다. 출발신호와 함께 아이들은 힘차게 목표를 향해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한 아이는 육상선수였습니다. 그는 제일 앞장 서서 뛰어가서 땀을 가볍게 뿜어내고 사다리도 날렵하게 통과했습니다. 그물 밑도 짹짹 기어갔습니다. 그 앞에는 탁자가 있었습니다. 그 탁자 위에는 밀가루가 담긴 쟁반이 있었고 그 아이는 제일 먼저 밀가루에 얼굴을 파묻고는 그 안에 들어있는 쪽지를 자기 입술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를 펼쳐보는 순간 그 아이의 얼굴은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거기에는 ‘할머니’ 라고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아무 할머니나 찾아가서 그 할머니의 손을 잡고서 같이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아야만 했습니다. 그 아이가 육상선수라서 아무리 잘 뛰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할머니가 제대로 뛰지를 못하는데, 결국 그 아이는 다 이긴 경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꼴찌로 달려온 아이는 키도 작고, 몸집도 작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밀가루 안에 있는 종이를 펴는 순간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 쪽지에는 분명한 글씨로 ‘체육 선생님’ 이라고 적혀있었기 때문입니다. 체육 선생님은 그 아이와 함께 뛰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 등에 업혀라.” 체육 선생님은 그 아이를 자기 등에 업고서는 쏘살같이 달렸습니다. 결국, 그날 1등을 차지한 아이는 육상선수인 아이가 아니라 바로 키도 작고 몸집도 작은 아이였습니다.

흔히들 인생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합니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길에도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향하여 천천히 걸어갈 수도 있고 숨차도록 빠르게 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나온 삶을 돌이켜 보면서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더 열심히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기성찰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순 4주일을 지내는 오늘, 우리는 사순시기의 반환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재의 수요일부터 시작해 온 사순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부활을 향하여 어떻게 나아갈지 중간 점검을 해 보는 시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뜨게 된 소경은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세상의 빛이요, 우리는 빛의 자

녀들입니다. 빛의 본질은 자신을 드러내어 남을 비추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소경은 신변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층인 바리새이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보다는 진실을 택할 줄 아는 신앙,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실천하는 생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소경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하느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신앙의 장에서 깨어나고 죄악의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판공성사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느님의 용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판공성사를 통한 깊은 회개로 우리 신앙의 정점인 예수님의 부활을 기쁘게 맞이하도록 준비합시다.

이봉영 요한세례자 신부  
인천교구 만수3동 본당 주임

**2014년 신앙생활 지침**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코린1, 12,7)

생명의 말씀

개안(開眼)의 여정

개안의 기쁨, 개안의 여정입니다. 깨달음의 기쁨, 깨달음의 여정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 여정입니다. 오늘 복음의 태생 소경은 우리 눈먼 인간을 상징합니다.

눈이 있다하여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눈 뜬 소경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눈이 열립니다. 예전에 써놓은 '예수님은 봄이다.' 라는 자작시입니다.

예수님은 봄이다 / 봄은 사랑이다  
봄이 입 맞춘 자리마다 / 환한 꽃들 피어나고  
봄의 숨결 닿은 자리마다 / 푸른 싹 돌아난다  
예수님은 봄이다 / 봄은 사랑이다

오늘 복음의 예수님이 흡사 부활의 봄 같습니다. 봄이 입 맞춘 자리마다 봄꽃들이 환히 피어나듯 예수님을 만나자 눈이 열린 태생 소경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자 깨달음을 주는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갈망과 필요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그분을 바라보면 희망이 샘솟습니다.

하느님을 찾는 사람이자 나를 찾는 사람입니다. 누구나의 근본적 갈망입니다. 하느님을, 나를 찾아 발견할 때 참 기쁨입니다. 광야인생을 압축하는 광야의 사순시기는 집중적으로 주님과 나를 찾는 시기입니다.

장미 주일이라 일컫는 오늘 사순 제4주일은 태생 소경처럼 주님을 만나 우리 역시 눈이 열리는 날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앞당겨 체험하는 날입니다. 하여 우리는 성령의 즐거움을, 영적 갈망의 즐거움을 지니고 남은 광야 사순시기를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나를 보고 알기 위해 있는 눈입니다. 눈이 있어도 주님과 나를 못 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의 발견과 더불어 나의 발견입니다. 이런 개안과 더불어 주님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할 때 참 기쁨입니다. 이래야 잠에서 깨어나,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어나, 세상 어둠을 밝히는 주님의 빛으로, 빛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세상에 이보다 큰 기쁨도, 행복도 없습니다. 태생 소경의 개안 과정은 그대로 우리의 평생 개안의 여정을 상징합니다. 심안(心眼)이 열린 그는 '예수님이란 분' 에서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마침내 영안(靈眼)이 활짝 열린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라는 결정적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만나 활짝 눈이 열려

믿음을 고백함으로 구원받은 태생 소경입니다.

사순시기뿐 아니라 평생 개안의 여정, 깨달음의 여정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입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고 답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봅니다.(1사무 16,7 참조)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은 밖의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의 눈입니다. 주님을 찾는 개안의 여정에 항구할 때 우리 역시 점차 하느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주님 만드신 참 좋은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수철 신부  
성 베네딕도회 요셉 수도원 원장



오직 사랑 때문에  
피 흘리신 예수와 함께  
오늘을 마지막인 듯이 깨어 사는  
봉헌의 기쁨으로  
부활을 향한 사랑의 길을  
끝까지 피 흘리며 가게 해 주십시오.

글\_이해인 수녀 / 그림\_구민정 엘리사벳

말씀의 향기

평신도 사도직의 귀감 장면 요한 박사

최근 서울 종로구청과 운석 장면 총리 기념사업회가 혜화동 로터리에 장 박사의 동상을 건립하기로 협약을 맺는 자리에 함께하면서 감회에 젖었습니다.

입학시험을 치르기 위해 제가 밤차를 타고 서울에 도착한 것이 1960년 3월 1일 아침이었고, 관훈동 고모님댁에 들어가면서 인사동 초입 민주당사에 나붙은 ‘못살겠다 갈아보자!’ 구호와 함께 부통령 후보 장면 박사 사진을 담은 선거 포스터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주간 토요일인 3월 5일에는 서울운동장 유세장으로 가서 후보의 연설을 들었고, 15일의 3·15 부정선거를 거쳐 4·19 혁명과 26일의 이승만 대통령 하야 성명 발표, 28일 허정과도 내각 출범, 7·29 제5대 민의원과 초대 참의원 선거, 양원 합동회의에서 8월 12일 윤보선 대통령 선출에 이어 19일에는 내각책임제 제2공화국 국정 책임자로 장면 총리를 인준하는 일련의 바쁜 정치 일정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1961년에 일어난 5·16을 겪은 다음 장 박사 내외분이 가톨릭 학생회관으로 오셔서 미사 참례하실 때 제가 복사를 썼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오늘의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과 같이 국정을 책임진 국무총리의 직분을 수행했던 장면 박사는 평신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이전에 주로 활동했으면서도 공의회 정신과 프란치스코 교황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가르침을 일찍부터 살아내신 분이라는 점에서 저는 특별히 그분을 조명하고 싶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가정에 충실했고, 자녀들로부터 존경받는 아버지였습니다. 따님인 베네딕타 수녀는 말했습니다. “나의 오랜 수도생활을 통해 가장 좋은 영향을 끼친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었다. 좋은 피정과 양성을 넘어서는 것이 표양이다. ... 우리는 매일 저녁 가족들이 모여 기도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옷을 갖추어 입고 자세를 바르게 해서 기도하게 했으며, 저녁기도와 묵주기도를 바쳤다. 가난하고 어렵고, 특히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다.”

장면 박사는 우리나라 첫 프란치스코 3회원이었고,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는 병상에서 ‘1회 회원’으로 받아들인다는 통보를 받고 “이 편입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영예”라며 기뻐했다고 전해집니다.

‘가톨릭운동’에 관한 말과 글과 열성적인 활동을 남긴 그분은 철저한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소년기, 청년기, 그리고 만년까지 보냈으며, 그 일관된 가톨릭 정신을 현실 정치에까지 적용해 보려 했던 훌륭한 평신도이며 정치인으로서, 민주

주의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줬던 인물(조광 교수)입니다.

국방부장관과 서울평협 초대 회장을 지낸 현석호 선생은 “정무에 바쁜 중에도 처음 만나는 사람이면 ‘교회에 나가 십니까? 나가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나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십시오.’ 하고 으레 말할 정도로 전교에 열성이었다. 그래서 저도 ... 만날 때마다 교회에 나갈 것을 종용 당했지만 정무에 바쁜 나머지 차일피일하다가 5·16 후에야 비로소 입교하게 되었다.” 라고 회상합니다.

최홍준 파비아노  
방송작가  
전 한국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장

+ 전례상식

십자성호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나요?

십자성호는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비록 작고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느님과 연관시키고, 하느님께 감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마와 가슴 및 양 어깨에 십자성호를 긋는 뜻은 이들 부위가 인간의 몸과 마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류의 십자 표시는 십자가상 죽음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짙막하고 명료한 신앙 행위가 됩니다.

<뜻을 알면 전례가 새롭습니다>  
정의철 신부기 생활성서

## 탈출기

성경산책

# 하느님, 이스라엘을 해방하시다. 그리고 계약을 맺으시다.

탈출기는 구약성경의 중심 텍스트로 간주됩니다. 왜냐하면 탈출기가 전하는 이집트 탈출과 시나이 계약을 통해 구약(舊約), 즉 ‘옛 계약’ 이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건은 하느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원체험’ 인 동시에 이스라엘과 세상을 향한 하느님의 ‘원계시’ 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탈출기는 (단지 ‘한 민족의 역사’ 라는 제한적 틀을 뛰어넘는) ‘하느님의 구원역사’ 라는 보다 보편적 지평 위에서 읽혀져야 합니다.

탈출기는 1,1-6,27을 통해 왜 이스라엘이 억압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탄생 이야기와 함께 그가 왜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되었는지, 그곳에서 모세가 어떻게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서술합니다. 6,28-13,16에서 하느님은 모세와 아론을 파라오에게 보내어 여러 표징과 기적들을 보여줍니다. 완고한 파라오는 결국 파스카를 겪고 나서야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나가게 합니다. 13,17-18,27에서 파라오는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을 뒤쫓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바다에 마른 땅을 만들어 이스라엘이 건너도록 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모세의 노래와 미르얌의 노래를 통해 기억됩니다. 광야로 나선 이스라엘은 물과 식량이 부족하여 불평하는데, 하느님은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그들을 구원합니다. 19,1-24,11에서 이스라엘은 시나이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하느님은 모세를 통해 계약체결을 준비시키고,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십계명과 계약의 규정들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규정들을 받아들이고 계약이 체결됩니다. 24,12-32,35에서 모세는 시나이에 올라 40일을 지냅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제의적 규정들에 대한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모세는 하느님이 새겨준 증언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지만 금송아지를 보고 돌판들을 깨버립니다. 레위인들은 모세를 도와 죄지은 백성들을 죽이고, 모세는 하느님의 용서를 청합니다. 33,1-40,38에서 하느님께서 출발을 명령하자 모세는 시나이로 올라가 다시 계약을 맺고는 두 증언판과 함께 내려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느님과 함께 여정을 떠나기 위해 성막과 성물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제작이 완성되자 모세는 그것들을 축복하고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창세기와 마찬가지로 탈출기를 이끄는 문학적 동력은 같습니다. 탈출기의 전반부는 하느님과 파라오의 갈등이 이야기를 이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종으로 부리기를 원하는 파라오와 (성조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려는 하느님 사이의 갈등은 (억압과 폭력에 맞서는) ‘자유와 해방’ 이라는 신학적 주제와 연결됩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후 그 갈등은 하느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갈등으로 발전합니다. 이렇게 탈출기는 이스라엘의 문제가 단지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드러냅니다.

이제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선택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종’ 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느님의 백성’ 으로 살 것인가? ‘억압과 폭력’ 인가, 아니면 ‘자유와 해방’ 인가?

최승정 신부  
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 성 쟁야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천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지향	봉헌자
3월30일 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윤바오로(광의)	가족
	연 이스테파노(상준)	가족
	연 이스테파노(상준)	전례성가대
	연 이스테파노(상준)	성루카
	연 이스테파노(상준)	김엘리사벳
	연 이스테파노(상준)	임루시아
	연 김마리아(순원)	전수산나
	연 이마리아(호철)/마리아	이카타리나(상주)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박준기	이시몬/울리엣다
	생 유케빈	유데레사
	생 손세라피나(영혜)	이아나스타시아
	생 김점마(영순)	진카타리나(영순)
4월 1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생 김마리아나(정임)	박헬레나
4월 2일 수	연 본당선종연령들	선종봉사회
	연 이스테파노(상준)	전안드레아/데레사
4월 3일 목	생 이정우	전수산나
	연 방아오스딩/필립보	전마리나(소영)
4월 4일 금	연 메철투안토니오	서데레사
	연 메철투도린	서데레사
4월 5일 토	생 유데레사	전안드레아/데레사
	연 권요한/서아가다	김카타리나
	연 이요한	김카타리나
	연 정다니엘	김카타리나
	연 이마리아(수영)	이엘리사벳
	연 메철투안토니오	서데레사
	연 메철투도린	서데레사
	연 정야고보/아가다	전데레사(윤자)
	연 요세핀브라트/정마리아	전마리나(소영)
	연 서라이운도	서데레사
	연 이스테파노(상준)	백미카엘/김로사
	연 김베드로(영길)	백미카엘/김로사
	생 꾸리아 활성화	꾸리아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72	224	40	336
헌 금	\$550	\$1,358	\$36	\$1,944

< 교무금 > \$2,760

최환준(3) 양인심(3-4) 변귀태(3) 성태성(1-6)  
부건화(1-4) 이완수(3-4) 정애리(3) 정창희(3)  
추혜성(1-3) 송선주(1-4) 이선희(3) 허동원(3)  
문아영(1-3) 김용식(3)

< 성소후원금 > \$390

변귀태(1-12) 정창희(3) 이선희(3) 김용식(3)

< Bishop's Appeal >

변귀태(3)

< 감사헌금 >

김순이 \$100

< 부활초/꽃봉헌 >

윤순의 \$100 양우선 \$100 김아레 \$100

~~~~ 오늘 간식은 주봉진 요셉/마리아 가정 제공해 주셨습니다. ~~~~

2014년 신앙생활 지침 :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코린1, 12,7)

- 공 제 사 양 -

◆ 전례안내

성시간 : 4월 3일(목) 저녁 7시 30분  
성모신심미사 : 4월 5일(토) 아침 7시 30분

◆ 지속적인 성체조배

4월 4일(금) 저녁 9시부터 4월 5일(토) 아침 7시까지

◆ 사순절 전례 <십자가의 길>

사순시기 동안 금요일 오후 7시 20분부터  
주일 아침미사 전 7시 20분부터  
주일 교중미사 전 10시 20분부터  
'십자가의 길' 기도를 봉헌하고 이어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 사순시기 동안 금요일 오전 7시 30분 미사는 없습니다.

◆ 부활판공성사

사순시기 동안 매 미사 30분 전에 성사표를 작성하여 판공성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 합동판공성사 : 4월 8일(화) 저녁미사 후

◆ 부활봉성체 : 사무실로 신청해 주십시오.

◆ 부활초/꽃봉헌을 사무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 모임

-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2호실
- \* 기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 사목회의 : 3월 30일(오늘) 교중미사 후 1회의실
- \* 골프대회준비모임 : 3월 30일(오늘) 교중미사 후 사제관 앞방
- \* 요아킴/안나회 : 4월 6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대건회관

◆ 본당 ME 모임

일시 : 4월 5일(토) 오후 5시  
장소 : 한치용 요셉/헬레나 댁 925-287-9772

◆ 교중미사가 끝난 뒤 바로 주일학교 영어미사가 시작됩니다. 성당 안으로 출입을 삼가시어 미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봉사 활동 안내**

|              |               |                     |
|--------------|---------------|---------------------|
| 3월30일(오늘) 오후 | 화단정리 및<br>대청소 | 평협소속회원 및<br>봉사단체 회원 |
|--------------|---------------|---------------------|

**3월 구역모임 고린도전서 1-2장**

|       |             |           |
|-------|-------------|-----------|
| 5 구역  | 3월30일(일)미사후 | 대건회관      |
| 8-1구역 | 3월30일(일) 1시 | 교육관 106호실 |
| 10 구역 | 3월30일(일)미사후 | 교육관 107호실 |

◆ 프란치스코 모임

4월 6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107호실  
\* 40대 초반 ~ 50대 초반 형제님(부부동반)  
연락처 : 510-566-2175/510-789-3949

◆ 본당 봉사자 지문 날인(오클랜드 교구 의무사항)

일시 : 4월 6일(다음주) 오전 9시 ~ 11시  
스케줄 : 모든 사목위원 9시 ~ 10시  
주일학교 교사 10시 ~ 11시

◆ 재활용 물건을 도네이션 받습니다.

일시 : 3월 30일(오늘) 교중미사 후 친교실  
가능한 물품 : 옷, 신발, 지갑, 벨트, 침대보, 이불 등  
주관 :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비영리단체  
(참고 : [www.thelittlevoiceproject.org](http://www.thelittlevoiceproject.org))

◆ 주일학교 여름캠프(다음주부터 접수)

High school : 7월 27일 - 7월 30일  
Jr. High : 7월 30일 - 8월 1일

◆ 청소년 기금 마련 골프대회

일시 : 4월 26일(토) 12시  
장소 : Metropolitan Golf Link, Oakland  
접수 : 오늘부터 교중미사 후 친교실

**주일학교 소식**

- 주일학교 11시/영어미사 12시 30분
- 영어 부활판공성사 : 4월 6일 오전 11시 103호실

**안국학교 소식**

- 4월 5일 : 양로원 방문(Diamond Care)
- 4월 12일 : 북가주협의회 주최 <나의 꿈 말하기 대회>